metro
메트로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제27□2호 www.metrobusan.co.kr

Entertainment p/20

레이디 가가 '파격 올누드'

사무실 같은 '회원제 카페' 뜬다

수다보다 업무용 특화된 신개념 카페 '디지털 코피스'
고객 하루종일 눈총 안받고…업주 고정고객 유지 매력

오전 8시.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 중인 김연우(34)씨가 집을 나선다. 동네 카페로 '출근'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창업 비용을 줄이려고 사무실을 빌리는 대신 집 근처 '디지털 코피스' 정기권을 끊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 작업은 물론, 계인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으니 웬만한 오피스가 부럽지 않다. 김씨는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 카페와 스터디룸을 전전했는데 눈치가 보이거나 시끄러워 불편했었다"며 "간단한 업무 환경이 갖춰진 데다 소란스럽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마음에 쏙 든다"며 만족해했다.

카페에서 일이나 공부를 하는 '코피스(coffee+office)족' 사이에 최근 '디지털 코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프린터나 스캐너, 컴퓨터처럼 사무실에 꼭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구비해두는 것은 물론이고 오전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작업하기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놓아 벤처기업이 나눠 쓰는 공공 사무실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내 라이브러리 카페 '카페큐브'는 전 좌석이 1인 테이블과 1인 소파로 꾸며져 있다. 최신형 복합기기 놓여있는 것만 빼면 도서관 카페의 모습이다. 한달 단위 회원제로 운영해 멤버십 가입 시 500여 권의 책과 8종의 원두커피, 각종 음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페큐브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여 명의 손님이 방문해 4시간 정도를 이곳에서 보낸다"면서 "프리랜서부터 작가, 대학생 등 자신만의 작업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카페 '오래있어도 괜찮아'는 이에 이름부터 편히 눌러앉았다 가기를 권한다. 창문과 기둥을 보고 한 명씩 앉게 끔 배치된 의자는 수다가 아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인근 대학생들의 아지트나 다름 없다.

서교동에 자리한 '오디치는 코끼리'는 대주 보는 자리마다 파티션이 처져 있다. 정기권을 끊으면 간단한 소지품을 두고 다닐 수 있는 사물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스탠드 조명을 배 못해 노트북·아이패드 등 디지털 기기를 대여해 쓸 수도 있다.

◆일반 카페보다 비싼건 '자릿값'

코피스족들에게 디지털 코피스의 등장은 반갑다. 코피스족들이 나타난 2009년 이후 머물기 좋은 카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지지하는 바람에 카페 주인들의 눈총을 받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코피스족들의 필수 아이템인 전원 콘센트를 매장에서 없애버리기도 했다.

소위 '자릿값'인 음료 가격은 대부분의 디지털 코피스가 일반 카페에 비해 2000~3000원 가량 비싼 편이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대여비를 따로 받거나 정기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고정 수익을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조금 깊숙한 골목길에 있어도 이용객들이 꾸준히 찾아온다. 짐을 두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자체 규칙을 만드는 등 일반 카페와 다른 '이용 방법 가이드'도 이색적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동네마다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고정적으로 손님을 끌 수 있는 운용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1인 사업자들이 늘면서 집무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 디지털 코피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람기자 kbr@metroseoul.co.kr

2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윤일록이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쉽다! 한국, 일본에 1-2 패배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에 한 골 차 패배를 당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2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 남자부 3차전 최종전에서 '운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전반 25분 가키타니 요이치로(세레소 오사카)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33분 윤일록(서울)의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후반 종료 직전 가키타니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1-2로 무너졌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의 역대 76번째 A매치(친선경기 포함)에서 통산 40승22무14패를 기록했다. /정민지기자 mars@

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내년 공제율 10%로 낮추고 일몰시한 2015년으로 늦추기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 일몰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 상품 거래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김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하다. 김 의원 등은 부부 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 30% 이상인 과세 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5~10%, 거래 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100일만 더 파이팅! 2014학년도 수능 D-100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뉴시스

잠실구장 달군 메트로신문 '프로야구 특집판'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후반기도 메트로신문이 함께한다. 27일 LG-두산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 일대에서 메트로신문 프로야구 특집판이 배포되고 있다. 이번 특집판은 9개 구단의 전반기 MVP와 에피소드, 후반기 전망 및 알찬 국내외 야구 정보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들로 가득 채워졌다. /조성준기자 when@

서울시도 전두환 재산 압류

지방세 4500만원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미납한 지방세 4500만여 원에 대한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방세 4484만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은 5년 후인 2015년 7월까지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참가 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 압류는 두 개 이상 기관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 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보장된다.

다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1762억원에 달해 세금을 먼저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측은 참가 압류를 하면 법적으로 추징금 납부 전에 조세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참가 압류의 경우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납부 시효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효를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딸린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서대문세무서가 2010년 뒤늦게 부과했다.

/유선준기자

28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민들이 주변을 구경하자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 & 뉴스

술 취한 항공기 꼼짝마!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박선옥기자

피해자 핫라인·비상호출기…보복범죄 막는다

● 대검찰청 강력부는 증가하는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나 증인과 검사실 핫라인을 설치하고 피의자 석방 시 통지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자나 증인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비 안전 가옥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김유리기자

공시족 45만 돌파…국회8급 경쟁률 774대1

연간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45만 명을 넘어섰다.

28일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행정·입법·사법부 국가공무원 공채에 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35만8678명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지방직 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자와 올해 지방교육직 공무원 9급 시험 응시자 9만4623명을 더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공채 지원자 수는 45만3301명에 달한다.

실제 선발 인원은 9667명으로 평균경쟁률은 46.9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올해 2738명을 뽑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공채 사상 최다인 20만469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74.8대 1이나 됐다.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공무원 공채 시험은 국회사무처 8급 시험으로 13명 선발에 1만6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774.5대 1에 달했다.

경쟁률이 제일 낮은 법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도 380명 모집에 7374명이 지원, 1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유리기자

북측에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북측에 사실상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

류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29일 북측과의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앞서 6차례 진행된 실무급 회담을 북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일(29일) 5개 민간단체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강서구, 공원 돌보미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우장산, 개화산, 까치산 공원 등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등 125개 공원을 관리할 주민(단체 포함) '공원 돌보미'를 모집한다.

활동 주기는 주 1회, 월 1회, 연 4회 등 다양하며 공원 내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위험 요인 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문의 02)2600-4187

만5세 남아 '여탕 금지' 추진

여성 목욕탕에 출입 가능한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중목욕탕 이용 여성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여탕에 입장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실 및 탈의실에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은 만 5세다. 2003년 만 7세에서 낮아진 후 10여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의 미디어 접촉 환경 및 성장 속도 변화 등에 따라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한부모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등 증가로 가족 관계 구성이 달라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유리기자

초·중·고생 69% '스마트족'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국 1만1410개 초·중·고교생 623만277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달 1일 현재 초·중·고교생 69.1%(434만7349명)가 태블릿 PC를 포함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초등학생은 48.8%, 중학생은 85.1%, 고등학생은 83.7%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유리기자

휴가 피크… 꼬리 문 출국행렬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된 28일 오전 경종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뎅기열 모기' 제주 습격

아열대 감염병 매개 곤충
공항·항구 등 통해서 유입
기후변화 탓 토착화 우려

열대·아열대 감염병으로 알려진 뎅기열·황열 등 매개 곤충이 국내에서 발견돼 토착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근화 제주의대 교수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세계화가 모기 매개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2010~2011년 제주지역에서 감염병 매개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와 같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진 개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베트남 흰줄숲모기가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곤충들의 완전 토착화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질병 매개체가 외부에서 유입돼 자리를 잡으면 해당 감염병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앞서 2008년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기온과 강수의 변화로 감염성 질환 매개 곤충의 지역적 분포가 바뀌어 뎅기열·말라리아 등에 대해 공중 보건학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유리기자 grace100@metroseoul.co.kr

병무청에서 2013년 8월중 현역병 모집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군별	모집분야		접수기간	입영월	전형일정
육군	기술행정병		'13.7.16 14:00 ~ 8.12 14:00	'13.10월	·1차발표 : '13.8.16 10:00 ·최종발표 : '13.9.26 10:00
	유급지원병		'13.8.1 14:00 ~ 8.30 14:00	'13.11월	·1차발표 : '13.9.5 10:00 ·최종발표 : '13.10.8 10:00
	동반입대병		'13.8.6 14:00 ~ 8.14 14:00	'13.10월	·최종발표 : '13.9.16 10:00
	직계가족병		'13.8.5 14:00 ~ 8.12 14:00	'13.10월	·최종발표 : '13.9.17 10:00
	연고지복무병		'13.8.7 14:00 ~ 8.14 14:00	'13.10월	·최종발표 : '13.9.17 10:00
	어학병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13.8.1 14:00 ~ 8.16 14:00	'13.10~11월	·최종발표 : '13.9.25 10:00
	개방 모집병	복지병	'13.8.1 14:00 ~ 8.16 14:00	'13.10월, 12월	·최종발표 : '13.9.25 10:00
		유해발굴병, 지형자료관리병		'13.10~12월	·최종발표 : '13.9.25 10:00
		유해발굴감식병		'13.11월	·최종발표 : '13.9.25 10:00
		S/W관리병, 기독교군종병		'13.10~12월	·1차발표 : '13.8.23 10:00 ·최종발표 : '13.9.25 10:00
		천주교군종병, 불교군종병, MC승무헌병		'13.10월	·1차발표 : '13.8.23 10:00 ·최종발표 : '13.9.25 10:00
해군	일반/기술병, 동반입대병 군악병, 유급지원병		'13.7.29 14:00 ~ 8.9 17:00	'13.10월	·최종발표 : '13.9.26 10:00
해병대	일반/기술병, 군악병		'13.7.29 14:00 ~ 8.9 17:00	'13.10월	·최종발표 : '13.9.26 10:00
공군	일반/기술병, 의장병, 군악병, 특수임무헌병 정보보호병, 전문화관리병		'13.7.31 09:00 ~ 8.7 17:00	'13.10월	·1차발표 : '13.8.21 10:00 ·최종발표 : '13.9.26 10:00

내 청춘에 충성!

TIP 1. 현혈자는 육군 기술행정병 2차 전형 시 가점이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1회 1점, 2회 이상은 2점)
2.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자격, 면허, 전공을 살려 지원입영 후 성공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선배들의 이야기(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지원서 접수(예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의 「군지원서비스」

스파이더우먼 된 김자인 128m 고층 벽타기 성공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25·고려대 대학원)이 스파이더우먼으로 변신했다. 인공 암벽이 아닌 높이 128m짜리 고층 빌딩을 등반했다. 김자인은 27일 오후 '가스 라이트 빌더링 인 부산' 에 참가, 빗줄 하나에 의지한 채 28층짜리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의 'KNN 타워'의 벽면 타기에 도전한 지 30분 만에 128m 높이의 28층 옥상에 올라 '타니시 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며 도전의 성공을 알렸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가스 라이트는 김 선수가 10m씩 오를 때마다 10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총 1280만원을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뉴시스

'도로명주소' 범죄피해도 줄여요

부산시 내년 전면 사용 앞둔 새주소 홍보캠페인

부산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새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29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시철도 연산역 안내센터와 관광구 등에서 부산지방우정청과 연제구청이 함께 새 주소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1년 7월 29일 법정 고시된 새 주소 사용 2주년을 기념하고 내년 1월 새 주소 전면 시행을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2014년부터는 새 주소 사용이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새 주소 사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 발생 현장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다.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혜택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이 새 주소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4년 새 주소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엽서 쓰기, 다가구주택·상가 등의 임대 건물에 상세 주소(동·층·호) 부여 및 활성화, 불꽃축제 등 각종 축제 때 홍보, 공공분야 주소 전환 완료 및 지원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뉴시스

부산은행 '콜센터 점자 안내장 제작' 눈길

시각장애인 서비스 강화 폰뱅킹 음성인식 기능도

부산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강화에 앞장선다.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26일 은행권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콜센터 서비스 점자 안내장을 제작해 부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 기증했다.(사진)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작한 '시각장애인 전용 콜센터 서비스 점자 안내장'은 은행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해 은행 업무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부산은행은 또 고객센터 전문 상담원이 직접 금융 상담 및 송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폰뱅킹 서비스(051-640-2580) 외 폰뱅킹 이용 시 버튼을 누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음성 인식 콜센터 서비스(1588-2800)'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만 29세 이하 취업연수생 100명 모집

부산 거주 고졸 이상 대상 하루 3만9200원 임금지급

부산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 체험과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해 올해 10~12월(4분기) 취업연수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부산에 살고 있는 만 29세 이하 고졸 이상 미취업자로 ▲최근 졸업자 ▲부산시 및 정부 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국가유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취업연수 희망자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내달 7일까지 시청 17층 고용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연수생으로 선발되면 다음달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연수 조건, 근무 요령, 복무 등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부산시와 직속 기관, 시의회 등에 전공 관련 부서나 근무 희망 부서에 배치된다. 이들 취업연수생에게는 하루 3만92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삼락공원 '록의 바다' 열린다

다음달 2~4일 부산국제록페 - 5개국 28팀 뜨거운 무대

제14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8월 2~4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다. 음악·사람·자연이 어우러진 삼락(三樂)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노브레인, 크라잉넛, YB밴드, 한영애 밴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록 밴드를 포함해 미국·일본·중국·핀란드 등 5개국 28팀이 사흘간 록의 대향연을 펼친다.

매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공연은 행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을 고려해 밤 10시30분까지만 진행되고, 행사장에는 오픈마켓과 푸드코트, 관람객 쉼터 등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올해는 창의와 형식의 제한 없이 참가해 공연할 수 있는 '록프린지 페스티벌'(르네시떼 상설무대 해들아울렛 야외광장)과 관객 누구나 즉석에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도 록커다'(삼락생태공원 행사장 내 피크닉존)도 진행된다.

이바구공작소 광복절 기념 태극기·무궁화 변천사 전시

부산 동구는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30일 오후 4시 초량동 이바구공작소에서 '사랑해요 대한민국'을 주제로 태극기와 무궁화의 역사 의미 변천사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펼친다.

이번 전시회는 9월 2일까지 태극기와 무궁화 전시 등을 비롯해 부산지역 독립운동가인 박재혁 의사, 최천택 선생, 변봉금 여사, 김반수 여사, 양한나 여사, 오택 선생 등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료 등 50여 점을 전시 소개할 계획이다.

태극기는 국가보훈처와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의 지원을 받아 변천사 등을 패널로 제작해 전시하고 무궁화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실제 꽃을 전시해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한·중·일 어린이요트대회 내달 2~5일 우정의 레이스

부산시는 다음달 2~5일 북구 화명동 생태공원정기잠에서 제19회 한·중·일 어린이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순환제로 열리는 이번 어린이요트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요트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선수 7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는 16세 이하만 탈 수 있는 국제 옵티미스트급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회 기간 중국과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의 집에서 지내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 어린 선수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나라사랑 담은 사진공모전 다음달 1일부터 응모 접수

부산보훈청은 부산지역 현충시설을 통한 나라 사랑 정신을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지역 현충시설이나 현충시설을 통해 그려진 나라 사랑의 감동적인 모습과 관련된 주제의 사진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보훈청 블로그(blog.naver.com/lala07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편집인	[illegible]
사업본부장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부산지사장 책임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라푼젤'만나고 '7번방의 선물'받고

영화의전당 영상문화 저변 확대 위한 3가지 프로그램 운영

부산의 대표적인 영상 복합 문화공간 영화의전당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화의전당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고 영상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월트디즈니와 함께하는 무료 야외상영회 ▲찾아가는 영화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 프로그램들을 마련,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서머 무비 나이트 2013

8월 한 달간 영화의전당의 밤은 더욱 환상적이고 로맨틱해진다.

다음달 7일부터 3주간 매주 수·목·금요일 저녁 야외극장에서 디즈니 영화가 대대적으로 상영된다.

영화의전당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함께 부산 시민들이 꿈과 사랑, 우정이 가득한 디즈니 영화를 통해 행복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서머 무비 나이트 2013(Summer Movie Night 2013)'을 마련했다.

영화의전당의 아름다운 외관을 배경으로 야외 스크린에 펼쳐질 디즈니의 사랑, 꿈, 모험과 상상력이 가득한 영화들은 영화의전당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한여름 밤의 야외상영회' 등의 시회공헌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는 월트디즈니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시리즈 1·2·3편'과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라푼젤' 등 디즈니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타이틀 영화들이 국내 최초로 무료 상영될 예정이다.

디즈니 코리아와 영화의전당(www.dureraum.org)은 이번 무료 상영회를 매년 여름 함께 진행하는 대표 문화 행사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051)780-6000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영화의전당은 시네마테크부산 때부터 진행해온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자체 기관 및 지역 단체와 연계해 영화관이 없거나 영화를 쉽게 보지 못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영화 관람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화 나눔 사업이다.

위부터 '라푼젤', '미녀와 야수', '7번방의 선물'

현재 영화의전당은 아카이브에 소장해둔 영화들을 적극 활용해 상영에 필요한 일시 장비 및 인력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늘려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영화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 오후 8시 덕상초등학교에서 문화복지 공동체 사상프린지와 협력해 첫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후 명반동우 도서관, 북구청, 부산 교도소, 보수동 책방골목 등과 함께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이어나간다.

또 찾아가는 영화관은 DVD 상영회도 함께 지원해 부산지역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복지 차원의 상영회를 진행할 경우 영화의전당이 엄선해 수집한 DVD 자료를 대여해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051)780-6112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회

29일 '7번방의 선물'을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릴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회 역시 영상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 나눔 사업 중 하나다.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상영회'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친절하고 실감 나게 영화를 안내하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색다른 영화적 체험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료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3000원이고 1~2급 장애자 보조 안내자와 1~3급 시각장애인의 보조 안내자는 1500원이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약시자자들을 위한 리플릿도 별도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51)780-6000 /뉴시스

부산교통공사 다음달 9일 시민기관사 체험행사 열어

부산교통공사는 다음달 9일 오후 1시30분 부산도시철도 1·2·3호선에서 열리는 '제7회 시민기관사 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1·2·3호선 각 차량기지에 모여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취급실과 안전체험장을 견학하는 행사다. 또 전연습실에서 전동차 운전도 배울 수 있다. 호선별로 운행하는 전동차 운전실에 2~4명씩 승차해 기관사 업무도 직접 체험한다.

부산·김해·양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를 통해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가능하다.

1호선 46명, 2호선 46명, 3호선 28명을 선발해 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교통공사는 참가자에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명예전도차량운전면허증'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경세관, 부산역광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품 전시회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9~31일 부산역 광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순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서는 수입품·국산 구별법, 원산지 표시 상식 퀴즈, SNS 공유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부산세관은 이번 전시회가 지역 시민들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휴가철에도 원산지 단속 강화와 함께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이다.

부산웨스틴조선 서울 '전복 삼계탕' 드세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다음달 31일까지 한식당 셔블에서 여름 최고의 보양식 '전복 삼계탕'을 선보인다.

인삼·대추·황기·마늘·생강·찹쌀 밤 등 좋은 재료를 모아 정성껏 끓인 삼계탕에 전복을 함께 넣어 원기를 살리고 식욕을 돋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식당 셔블 염정수 조리장은 "인삼과 황기를 고아낸 육수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전복과 담백하고 소화 흡수가 좋은 삼계탕이 어우러져 원기를 회복하기에 더없이 좋다"고 말했다.

가격은 4만5000원이다. 문의 051)749-7437

눈 씻고 봐도 놀라운 입체그림

트리아이미술관, BIFF에 오픈 8개 테마관에 착시 작품 가득

3D 입체 그림, 공중 부양, 틀로 그림 등 다양한 착시 입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트릭아이미술관이 부산 남포동 BIFF광장에 새롭게 들어섰다.

27일 문을 연 트릭아이미술관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서울 트릭아이미술관에서 검증된 기획과 테크닉으로 가장 최신작의 착시 미술 작품들로 채워졌다.

전시관은 역사관, 어드벤처 테마관, 명화관, 라이브관, 사파리관, 환상여행관, 세상에 이런일이관 등 8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장대함을 이용해 착시 미술을 거대한 공간에 적용해 디자인된 테마로 신기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부산의 상징과 경치를 주요 콘셉트로 한 '환상여행' 테마관은 부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액자 포토존과 광안대교와 불꽃놀이로 꾸며진 착시 공간에서 이색 포토 컷을 남겨 부산의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문의 051)557-1577

3D 프린터로 만든 소총까지 나왔네

캐나다서 발사 성공

지난 5월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찍어낸 권총이 등장, 무차별 총기 제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총까지 제작돼 논란이다.

27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남성이 3D 프린터로 22구경 소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만든 3D 프린터 소총의 발사 장면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 나오는 흰색 플라스틱 소총은 언뜻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탕' 소리를 내며 발사되는 모습은 영락없는 '무기'다. 소총은 발사 직후 몸체에 균열이 생겨 완벽하게 발사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 소총은 미국 온라인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공개한 3D 프린터 권총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인터넷에 3D 프린터 권총 설계 도면을 공개했다. 당시 도면 공개 이틀 만에 네티즌들의 내려받기 횟수가 10만 건을 넘어서자 미국 정부가 나서 게시물 삭제를 지시한 바 있다.

자동차 모델, 신발, 인조뼈 등 못 찍어내는 게 없는 3D 프린터는 제조업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총기 제작에 사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미 연방 의원들은 3D 프린터 총기 제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관련 설계도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저가의 가정용 3D 프린터까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미기자 seemi@metroseoul.co.kr

한 마리 새처럼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레드불 플러그테그 대회에서 새 모양 비행체를 탄 참가자가 첫 날을 휘날리며 날고 있다. 레드불 플러그테그는 참가자가 손수 만든 무동력 비행체를 타고 점프대 위에서 멀리 날리는 대회다. /오키히 연합뉴스

<구들러 스쿠터>

'씽씽이' 타고 박물관 둘러보세요

metro Russia

'스쿠터 타고 박물관 관람하세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말마네지 전시장 입구에 관광객들에게 무동력 스쿠터 '씽씽이'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이 생겨 화제다.

관광객들은 모스크바 시내 박물관을 스쿠터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스쿠터 손잡이에는 근처 관광 명소들을 알려주는 지도가 부착돼 있다.

모스크바를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씽씽이의 등장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관광 코스를 따라가지 않고 스쿠터를 이용해 원하는 박물관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쿠터를 빌리기 위해서는 3000루블(약 10만 9000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내면 된다. 대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반납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스쿠터를 반납하면 돌려받게 된다.

/메트로 러시아·조선미기자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2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거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형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런데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계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원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 리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를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팽팽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증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틀트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 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코스닥
1910.81 (+1.20)	545.31 (+3.57)

금리	환율
2.94 (-0.01)	1111.50 (-4.50)

뉴스&뉴스

복잡한 통신 혜택 한번에 SK텔레콤이 28일 복잡한 통신 혜택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뉴 T서비스'가 출시 약 2달 만인 지난 26일 내려받기 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2기 신도시 7000가구 분양 '큰 장'

전셋값 이상과열…위례·동탄 등 하반기 막바지 물량 관심둘만

거래량이 뚝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서 전셋값만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쏟아져나오는 위례·동탄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막바지 분양 물량이 눈길을 끈다.

2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0곳의 7008가구(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강남 생활권인 위례신도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는 민간 보금자리아파트인 'e편한세상 래미안'과 대우건설이 짓는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송파 와이즈 더샵(주상복합)', 현대산업개발의 '위례아이파크 1·2차(주상복합)' 등 총 6곳에서 4489가구가 공급된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경남기업과 반도건설이 막바지 분양에 나서 각각 344가구, 999가구를 선보이고 광교신도시에선 울트라건설이 354가구를 분양한다.

LH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820가구를 공공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막판 물량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가령 위례신도시에서 10월 중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래미안의 분양가는 민간 물량보다 15% 싸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뚝 끊긴 속에서 전셋값만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아파트 3.3㎡당 전셋값은 평균 900만 11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전달의 6분의 1 수준(83.4%)으로 급감했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본격적인 장마철의 영향이 작용했다.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 탓에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거래절벽 현상은 다음달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반찬 4팩에 만원! 롯데마트가 휴가철을 맞아 반찬 4팩을 아이스팩과 함께 기존보다 30% 저렴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에어컨 처음 켤땐 5분간 송풍모드

김민지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여름철 전기요금 다이어트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덥덥이 불쾌지수만 높아지고 있다. 무더위 해결책으론 에어컨만 한 것이 없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아기들에겐 에어컨은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그러나 비싼 에어컨 전기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 역시 두 살과 한 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 비싼 전기료는 항상 골칫거리다. 하지만 어쩌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면 절망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에어컨은 구입할 때부터 확인할 게 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다.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면 5등급 제품보다 22% 정도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야 한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에어컨 필터 청소다. 사실 번거롭고 귀찮아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에어컨 청소를 해주면 연간 전기료를 약 13% 정도 아낄 수 있으니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겠다. 에어컨의 송풍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절약 방법 중 하나다.

에어컨을 처음 켰을 때 5분 정도 송풍 기능을 사용하면 실내가 더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에어컨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 무거운 찬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내의 공기 전체가 순환이 돼 빠른 시간 내에 시원해진다. 더불어 창문에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직사광선을 차단해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직사광선만 잘 막아줘도 냉방 효율이 약 15% 정도 올라간다. 이외에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함께 이용하면 냉방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에어컨 대신 제습기를 사용한다면 비용과 전기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minji@

구글의 야심…방송까지 노린다

일반TV→스마트TV 바꾸는 무선 화면전송장치 '크롬캐스트' 매진

구글이 '입는 컴퓨터' 외에 TV·방송 사업에도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최근 공개한 크롬캐스트(사진)는 구글의 야심을 보여준다. 이 제품은 쉽게 말해 TV용 무선 화면전송장치다.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단자가 있는 TV에 꽂으면 크롬 브라우저가 구현하는 동영상을 TV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일반 디지털 TV를 스마트 TV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셈이다. 평범한 TV가 똑똑해지는 데 드는 비용은 35달러(약 3만9000원). 기기를 잘 활용하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 TV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크롬 브라우저를 쓸 수 있는 단말기라면 어떤 것이든 크롬캐스트와 연동할 수 있다. 즉 대다수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해당된다. 이때 이들 단말기는 리모컨처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을 때 크롬캐스트를 TV에 꽂으면 보던 드라마를 TV에서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검색 등의 장면도 TV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TV 자체를 커다란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크롬캐스트를 쓰려면 와이파이가 구축돼야 한다.

이 기기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검색 등 구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송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TV를 켠 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는 기존 방식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TV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시청자-소비자'라는 등식이 '시청자-제작자·공급자·소비자'로 변한다.

결국 구글이 방송을 만들거나 유통하지 않아도 방송사나 제작사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용이 나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연구개발(R&D)을 집중·확대해 보다 나은 상품성을 입히는 구글의 특성을 감안하면 크롬캐스트가 던질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유저들이 크롬캐스트의 미래를 간파한 것일까. 제품 출시 하루 만인 지난 27일 구글의 야심작은 매진됐다. /이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부동산단신

금강산비치리조트 청약

대우건설이 동해안 고성에 시공한 금강산비치리조트에서 회사 보유분 100구좌에 대해 특별 분양하고 있다. 금강산비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장점.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총 분양가 패밀리형 53㎡가 691만원, 스위트형 99㎡는 998만원, 디럭스형 165㎡는 1482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문의: 02)541-0344

안산 공구전문유통상가 분양

한산공영(주)이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안산 공구전문유통상가 3단지 근린상가'를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시화산업단지와 반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1만60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현재 공구전문유통상가 1~2단지가 활발히 영업 중이다. 문의: 1899-3766

말뚝 지지력 극대화 기술개발

건설 현장에서 파일링 공사 시 매립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특화 시공 기술이 개발됐다.

동부건설이 롯데건설, 파일텍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파일' 기술은 기존의 파일링 방법으로 시공해 시공상 어려움이 없음은 물론 지지력 증대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파일은 매입 말뚝을 시공할 때 사용해왔던 기존의 콘크리트 파일 하단부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에 풀HD CCTV 도입

대림산업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풀HD 폐쇄회로(CC)TV를 아파트 단지에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카메라의 화질은 200만 화소로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된 41만 화소보다 5배가량 선명하다.

대림산업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논현경복'을 시작으로 향후 분양되는 모든 사업지에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리고로 만든 아이폰 케이스 28일 서울 명동 프리스비 매장에서 열린 '애플 아이폰 5용 레고 홀더 케이스 론칭 기념 사진 행사'에서 모델들이 레고 블록으로 만든 아이폰 케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삼성 북미TV 점유율 1위

● 프리미엄 TV를 앞세운 삼성전자의 북미 시장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NPD는 삼성전자가 상반기 북미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평판 TV 시장점유율 29.4%로 1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문별 점유율에서도 LCD TV 26.9%, PDP TV 54.2%, 스마트 TV 36.1%, 3D TV 45.7%로 모조리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60인치 이상 대형 TV 점유율이 3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포인트 높아져 독주 체제를 강화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현대·기아차 브릭스 판매↑

● 현대·기아차가 올 상반기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이른바 '브릭스' 시장에서 판매 질주를 했다.

28일 현대차그룹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브릭스 시장에서 모두 128만3404대의 차를 팔았다. 현대차가 89만7089대, 기아차가 38만6315대다. 양사의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의 104만4017대보다 22.9%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다른 주요 경쟁자인 독일의 폭스바겐(13.1%), 미국의 제너럴모터스(7.5%)를 뛰어넘는 것이다. /박상훈기자

대기업 해외자원개발 성과

● 국내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 소속 84개 해외 자원 개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3조4605억원, 당기순이익은 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대 그룹 해외 자원 개발 법인의 매출 대비 순익률은 평균 9.3%로 같은 기간 전체 계열사의 평균 순익률 5.5%를 훌쩍 뛰어넘었다. /박상훈기자 zen@

오일 한방울의 '여름마술'

피부에 강한 보습작용 유수분 균형 유지하고 아로마 제품 숙면 도와

고온다습한 날씨엔 무겁고 끈적이는 오일에 좀처럼 손이 안 간다. 하지만 '반전'이라 할 만하다. 실내외 큰 온도차, 강한 자외선으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여름 피부에는 강한 보습력과 침투력을 가진 오일 제품이 유용하다. 이와 함께 땀과 피지로 뒤범벅된 얼굴을 말끔히 씻어내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 숙면을 돕는 데도 산뜻한 여름 오일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지를 과잉 분비, 속 땅김을 유발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이때 보습 성분을 함유한 페이셜 오일은 피부 속 깊숙이 유분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필로소피의 '원 호프 이즈 낫 이너프 오메가 3·6·9 리플레니싱 오일 세럼'은 해바라기·아몬드 등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오메가 3·6·9을 포함하는 천연 성분의 드라이 오일. 산뜻하게 흡수돼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은 물론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켜준다.

워터프루프 화장을 많이 하는 여름에는 무엇보다 꼼꼼한 클렌징이 중요하다. 먼저 오일로 피부 노폐물을 녹여낸 뒤 폼으로 씻어내는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 슈에무라 '녹차 모링가 클렌징 오일'은 기존의 '어린 녹차 클렌징 오일'에 모링가 잎 추출물을 더해 세정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녹차 추출물에 클렌징과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특히 '미라클 그린 리무버 시스템'을 통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메이크업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흡착해 말끔하게 제거한다.

찌는 듯 계속되는 열대야에 좀처럼 잠들기 힘든 여름, 아로마 효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에센셜 오일은 숙면을 도와준다. 피부에 스며들며 은은하게 퍼지는 향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오리진스 '피스 오브 마인드'는 민트, 바질 에센셜이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롤링하면 오일로 변하는 독특한 곡선 타입의 오일로 소량 덜어 녹인 뒤 목 뒤와 귓불, 관자놀이에 순서대로 마사지하듯 바르면 좋다. 이베디의 아로마 오일 싱글노트 라벤더'는 잠이 안 올 때 관자놀이나 베개에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스르르 잠에 빠지게 만든다. /박지원기자

리바이스 신제품 '레벨 다른 핏'

세이핑 진 'Revel' 화제

글로벌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가 올가을 여성의 완벽한 핏을 위한 청바지를 선보였다.

리바이스는 지난 25일 진행된 2013년 가을·겨울 컬렉션 프리젠테이션에서 특허받은 세이핑 기술과 최고급 데님 원단,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세이핑 진 '레벨(Revel)'을 공개했다. 2010년 청바지 핏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여성용 청바지 '커브 ID'를 선보인 지 3년 만이다.

리바이스 마케팅본부 김소희 본부장은 "레벨에는 신체 특정 부위를 컨트롤해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 주는 '리퀴드 세이핑 기술'이 적용됐다"며 "많은 여성들이 다리와 힙 라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빙 스트레치 데님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리바이스 레벨은 다음달 2일부터 전국 리바이스 매장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16만9000~19만8000원이다. /박지원기자

'보정속옷의 계절' 겨울 아니었네

비비안 최근 5년간 분석 5~7월 가장 많이 팔려

요즘 여성들은 더운 건 참아도 뚱뚱한 건 못 참는 걸까. 보정속옷이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정속옷은 보기 싫은 군살을 잡아주기 위해 몸을 압박해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갖춰 입기 어려운 아이템이다.

비비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의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연중 보정속옷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5~7월'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보정속옷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5~6월에 판매량은 1~2월에 비해 105%나 증가했다. 겨울에 비해 여름에 두 배 이상 팔리는 셈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판매된 보정속옷은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160% 늘었다.

이 같은 수요 때문에 시중에는 시원한 여름용 보정속옷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속이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에 통기성과 흡습성을 높인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양경희 비비안 매니저는 "보정속옷은 날씨가 덥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는 여름에 가장 잘 팔린다"며 "특히 볼록한 뱃살을 눌러주는 거들을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원피스 두 벌 가격이 9900원

신세계몰 여름상품 세일

신세계몰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름 상품 정리 세일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남성 의류를 비롯해 잡화,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입기 좋은 원피스 종류를 1만~2만원대에 선보인다. 망고스틴 페어리 원피스는 7700원, 플라워 그린 원피스 2종 세트는 9900원, 금림 코코이 여름 바지 팬츠는 9800원, 숄룰이스트 플라워 원피스는 1만5120원에 각각 내놓는다.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는 실버라벨 비비크림은 20% 할인한 2만3200원에 팔고 선크림 정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민감성 피부용 선크림인 컨트롤에이 선 프로텍터 크림은 반값인 1만4000원,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세라마이드 리퀴드 크림은 20% 저렴한 3만1200원에 판다.

이와 함께 라푸마, 헤지스 스포츠 등이 참여하는 'LG 패션 여름 클리어런스 세일'을 열고, 여름 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박지원기자

레스모아 "방콕 항공권 쏩니다"

부산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가 부산지역 고객들을 위해 여름 선발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레스모아 부산지역 전 매장에서는 8월 18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부산에서 출발하는 방콕, 제주도 왕복항공권 및 모형항공기·비치볼·여권 케이스 등을 선물한다.

이벤트 기간 코로크 샌들, 레인부츠 등 여름철 인기 아이템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샌들 2개와 비치백, 타석스로 구성된 '써머스 바캉스 패키지'는 60% 할인된 5만9000원에 선착순 한정 판매 중이다.

레스모아 남동현 팀장은 "바캉스 명소인 부산지역 고객들을 위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부산지역 매장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방콕, 제주 항공권 경품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보림기자

테이블 물들이는 체리·베리

미국 등 수입산 슈퍼푸드
지금이 한창 수확기 '제철'
식품업계 관련 제품 봇물

요즘 식음료 매장을 휩쓸고 있는 인기 만점의 식재료는 과즙이 톡톡 터지는 체리·베리류 과일이다. 음료는 물론이고 샐러드, 빵 속으로 쏙쏙 꽉 찼나게 건강하게 응용되고 있다. 냉동 상태가 아닌 생과를 얹은 메뉴도 여럿 등장했다.

제철을 맞은 미국 북서부 체리의 경우 한여름(6~8월)에 제일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수확한 지 14시간 안에 항공편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생체리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여름철 슈퍼푸드로 각광받는데 꼭지가 푸르고 열매는 선명한 붉은 빛을 띠는 것이 맛있다.

애슐리에선 여름 한정 메뉴로 크랜베리의 새콤달콤한 풍미와 페타치즈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칼리포니아 오렌지 베리 샐러드'를 내놨다. 크랜베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어 더위에 지친 몸까지 개운해준다.

계절별로 한정 음료를 꾸준히 선보여온 스타벅스는 올여름에 '딸기 레몬 블렌디드 주스'를 내놨다. 딸기·레몬 등 상큼한 과일을 담아 입안 가득 생동감을 선사한다. 9월 2일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한다.

기존에 가공제품이나 냉동으로만 맛볼 수 있던 블루베리도 생생한 맛을 즐길 수 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 국내에서는 9월까지지만 생과로 유통되는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폴리페놀·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뛰어난 디톡스 효과를 자랑한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여름 시즌 41층에 위치한 로비 라운지·바에서 '올 어바웃 베리 & 쿠키 디저트 뷔페'를 진행한다. 체리·블루베리·크랜베리·스트로베리 등 다양한 종류의 베리로 만든 파이·피자 등과 함께 이탈리아 일리 커피 또는 메밀차·쑥차 등 한국 전통차가 제공된다.

파리크라상은 시원하게 먹는 '설 브레드'와 '롤 디저트'에 갖가지 베리를 적용했다. 새콤달콤한 블루베리와 촉촉한 롤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여름엔 블루베리롤'과 크림치즈와 라즈베리 필드를 쫀짓한 빵 속에 채워넣은 '라즈베리 브레드'는 차갑게 먹으면 더욱 맛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베리류의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권보람기자 kwon@

팔씨름 세계 챔피언 내한 친선경기 '압승'

세계 팔씨름 챔피언 존 브젱크가 한국의 프로 팔씨름 리그(MLA) 국가대표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브젱크는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한 영화 '오버 더 탑'의 실제 대회 우승자로 그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주목받은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팔씨름과 악력 동호회 그립보드가 주최한 이번 슈퍼 매치는 국내에서 활약하게 최고의 실력자 6명과 존 브젱크의 대결로 진행됐으며 브젱크의 6-0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존 브젱크는 앞서 큐월드(www.Qworld.co.kr)가 주최한 파워볼 탑스핀 대회에서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권보람기자

수요일엔 던카치노 '반값'

던킨도너츠가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던카치노 카라멜·카푸치노·모카 3종을 반값에 제공하는 '해피 웬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던카치노는 에스프레소 시럽으로 맛을 낸 기존 프라페와 달리 리얼 에스프레소 샷을 직접 넣고 만들어 풍부한 커피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편 던킨도너츠에서는 해피 웬즈데이 행사 제품 외에도 그린티 초코치노, 레드빈 그린티 등 다양한 던카치노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www.dunkindonuts.co.kr

웅진플레이도시 밤 11시까지 야간개장

웅진플레이도시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 오후 11시까지 '워터파크&스파'를 개장하고 야간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야간 개장은 8월 19일까지 계속되며 오후 7~11시 사이에 워터파크&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열대야권'은 1만9000원, 야간 이용과 함께 시원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열대야 비어 패키지'는 2만5000원에 판매한다. 패키지 이용권을 공식 홈페이지(www.playdoci.com)에서 사전 예매할 경우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개장과 더불어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전개된다. 1년 내내 섭씨 0~4도를 유지하는 실내 스키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8월 31일까지 '스노 호러 빌리지'를 오픈한다. 안개가 흐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언제 유령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호러 이글루' 체험과 더불어 뒤편에 마련된 '호러 사진전'에서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심령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8월 17일까지는 물놀이와 함께 오리지널 난타팀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썸머 타악 페스타'와 '워터 스플래시 파티'가 열린다. 경품 행사인 '잡아라 럭키 워터볼'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만날 수 있다. /권보람기자

새 이대의료원장·병원장 선임

제14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10대 이대목동병원장에 이순남(혈액종양내과·왼쪽 사진) 교수와 유권(소화기내과·오른쪽)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폐암·흑색종·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대한내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및 대한암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 이사,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전주여고, 이화의대를 졸업한 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의대 암센터 연수를 마친 후 2006~2008년 이화의대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 교수는 소화기 질환(간 분야) 전문가로 2000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하버드의대 소화기내과에서 연수한 바 있다. /권보람기자

포카리스웨트 블루로드 '사랑의 페달'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가 8월 24일까지 '포카리스웨트 블루로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포카리스웨트가 9월 1일 서울 강남 압원동 마루공원에서 개최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 '블루로드 메인 이벤트'의 사전 행사로 포카리스웨트가 설치한 '사랑의 자전거 릴레이존' 부스 에서 열린다.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리는 만큼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페달을 돌려 정해진 시간 내에 부스에 설치된 하트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 포카리스웨트 기념품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부스는 2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 설치됐고 인천 문학구장(8월 3~4일), 건대역 스타시티(8월 10일)에 차례로 선을 보인다. /권보람기자

뉴스&뉴스

라그로타 '2글래시즈' 수상

●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등급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가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인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레스토랑 와인리스트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 레스토랑 등급인 2글래시즈(glasses)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라그로타는 국내 와인 레스토랑 중 최대 규모인 10만병 규모의 와인 셀러와 650여 종의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제주에 '놀부 한식마을' 오픈

● 놀부NBG가 최근 제주도에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담다 등 놀부의 3개 외식 브랜드를 모아놓은 한식마을 매장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한식 특유의 맛을 소개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원 회장, 참전용사와 오찬

●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28일 부산 대연동 부경대학교 동원 장보고관에서 뉴질랜드 참전용사 30명과 오찬 행사를 가졌다.

뉴질랜드 명예 영사로 활동 중인 김 회장은 이날 뉴질랜드 존 키 총리와도 만나 한국전쟁 참전국이었던 뉴질랜드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효순기자

역시 이병헌!…'레드' 2주째 흥행 1위

휴 잭맨 주연 '더 울버린' 뒤이어…'미스터 고' 5위 추락

할리우드 명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병헌은 2주 연속 웃은 반면, 몸값 120억원의 고릴라 링링은 계속 울었다.

28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이병헌이 비중 있는 조연으로 참여한 할리우드 코믹 액션물 '레드: 더 레전드'는 25~27일 전국에서 53만925명을 불러모아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다.

18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193만3088명에 이르러,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28일 관객 수까지 더할 경우 200만 고지 돌파가 확실하다.

친한파 할리우드 톱스타 휴 잭맨이 SBS '스타킹'에 나와 강호동과 씨름 대결을 벌이는 등 활발한 내한 홍보 활동을 펼쳤던 '더 울버린'은 개봉일인 25일부터 사흘간 51만3504명을 동원해 근소한 차이로 '레드…'의 뒤를 이었다.

한효주·설경구·정우성 주연의 액션 스릴러 '감시자들'은 상영 4주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식지 않은 흥행 열기를 과시했다. 28만8648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달 3일부터의 누적 관객수는 507만4003명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600만 고지도 충분히 밟을 전망이다.

문제는 순제작비 220억원이 투입된 '미스터 고'의 예상 밖 부진이다.

개봉 첫 주 3위로 불쌍해 불안감을 자아냈던 '미스터 고'는 16만9316명으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터보'에도 밀려 5위로 추락했다. 1000만 관객을 넘어 2000만 관객의 전무후무한 대기록 달성까지 내심 노렸던 투자·배급사 쇼박스㈜미디어플렉스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초반 흥행 성적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여성과 가족 단위 관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 스포츠 영화의 느낌이 강한 데다 매력적인 주연 배우가 없어 여성들의 구미를 자극하기 어려웠고, 어린이들에겐 너무 긴 상영 시간(2시간12분)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개봉될 '설국열차'는 높은 완성도와 별개로 아주 대중적이라고 보긴 힘들어, 올여름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의 흥행 결과에 업계의 걱정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레드 더 레전드

뫼비우스 국내 개봉 찬반…영화 전문가에 물었다

87% "성인 관람 문제없어"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영화 전문가들로부터 일반 상영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작사인 김기덕필름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시사실에서 기자·평론가·영진위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내 개봉 가능 여부를 놓는 찬반 시사회를 열었다. 상영 직후 투표를 실시했고 107명에게 배포된 투표 용지 중 107장이 회수됐으며 93표의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11표, 기권이 3표였다. 영화를 본 관계자의 86.9%가 국내 일반 성인 관객이 이 영화를 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김기덕필름 측은 이날 시사회에서 3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자신의 권과와 관계없이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뫼비우스'의 김순모 프로듀서는 "투표가 (국내 일반 개봉의) 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영화를 만든 우리의 고민을 이해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인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로 인정해준 것 같아 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제작사는 1분14초 분량의 20여 컷을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6일 두 번째 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또 2분 남는 분량을 추가 삭제해 세 번째 심의를 신청했고, 결과는 다음달 초에 나온다.

이날 상영된 버전은 1차 삭제본으로, 다음달 말 열리는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는 무삭제 버전이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한편 영화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가 25~26일 홈페이지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명이 확인된 7844명 중 79%(6182명)가 제한상영가 판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순호기자 suno@

8월 1일 상설매장 OPEN

지코드프라임 국산 면텐트

www.gcodeprime.com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을 주도하는 친환경 면텐트 및 장비를 개발코자 만들어진 순수 국내 신규 브랜드 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면 70% Canvas Tent
면과 폴리에스테의 기술적 결합으로 가벼우면서 강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Duo H Pole 을 사용
기존 tent 대비 안정적이고 tight 한 텐트 외관을 완성하였습니다.

국내 특허증
제 10-1132710호 : Tent 및 Tent 결합봉 조절장치

오시는길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105-3(별내동 379-7)
Tel 031-527-7661 ~ 3 Fax 031-572-7664
Email : yoon@yongminco.com

'바람이 분다'로 돌아온 日 애니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神)'으로 추앙받는 미야자키 하야오(72) 감독이 '벼랑 위의 포뇨' 이후 5년간의 침묵을 깨고 신작 '바람이 분다'로 돌아왔다. '바람이 분다'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전투기 설계자였던 호리코시 지로와 시인 호리 다츠오의 삶을 섞은 작품으로, 미야자키 감독은 대표작 '천공의 성 라퓨타' '붉은 돼지' 등에서 이야기했던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희망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됐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연민 어린 헌사를 담았다. 26일 도쿄 외곽 집무실에서 자신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즈키 도시오 프로듀서와 함께 한국 취재진을 만난 그는 칠순의 나이답지 않게 천진난만한 웃음과 유머를 섞어가며 모든 질문에 친절히 답했지만, 일본의 과거사 인식 등 민감한 대목에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소견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신작 '바람이 분다'의 포스터 옆에 앉아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東일본대지진>

"지진 콘티 짤때 재앙…제작 망설였죠"

– 전범으로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주인공을 내세운 까닭은?

앞서 '붉은 …'은 순수하게 공중전을 그리고 싶어 만든 작품이었다. 이번에는 '무조건 틀림없이 살았다고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란 질문과 결론에서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웃집 토토로' 때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기를 원하며 만들었지만, 막상 공개하고 나서 보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만 보게 되는 결과가 벌어졌다.

실제로 호리코시 지로는 군에 대항하여 살았다.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건가? 내 아버지도 전쟁에 가담했지만 집에선 좋은 분이셨다. 무조건 그 시대를 살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 전체적인 사운드가 무척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실감이 난다. 자연을 모사하는 방식도 여전히 훌륭하다.

음향과 그림의 기술적인 수준은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다. 특히 음향은 8-1 채널 사운드까지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많은 데서 소리가 들려와 도무지 뭘 들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바람~'에선 사운드 디자이너에게 "인간들이 내는 소리로 합하자"고 주문했다. 사운드 디자이너가 지진과 전투기 프로펠러 사운드는 물론이고 기차 기적 소리까지 입으로 내는 소리로 녹음하려 하기에 말릴 정도였다. (웃음)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는 젊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시신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렌즈를 통해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육안으로 본 걸 잊게 된다는 뜻이다. 직접 보고 뇌로 기억한 것을 그리라고 조언한다.

비행기 설계사의 삶 이야기
인간적인 사운드 입혀 완성

– 東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려 관동대지진을 다뤘나

지진 장면의 콘티를 그리고 있을 때 東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지만, 재난 영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으므로 중단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당시 여행 살아있던 아버지는 어렸을 적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만8000명을 죽게 했던 관동대지진이 일본의 운명을 바꿨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무척 안정된 사회였다"고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저러다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조금 그렇다. (웃음)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때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졌었는데, 요즘 보면 일본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나 싶어 걱정이다. 지금 같으면 '모노노케 히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보고 기억한 걸 그려야 '제맛'
3D 작품 만들 생각 없어요

– 동석한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에게 묻겠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앞으로도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나?

없다! 미국의 3D 애니메이션은 쇠퇴하고 있다. 지난해 할리우드는 100여 편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올해 편수를 줄였다. 3D는 대략 20년에 한 번씩, 이제까지 세 번 유행했는데 벌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 3D 열풍으로 3D TV까지 잠깐 유행이었지만 정면이 아니면 3D의 느낌을 만끽하기 어려워 벌써 시들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근 스튜디오 지브리가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관한 내 솔직한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 (헌법 개정으로) 일본 사회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인터넷에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고 하더라. 인터넷을 하지 않기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은 사이가 좋아야 한다.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면 안 된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에 사과하고 청산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별것 아닌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달라

한 나라의 총리에게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베 총리는 곧 '없어질(물러날)' 사람이다. 아베 정권처럼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면 안 된다는 취지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많이 각오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무척 감사하다.

/도쿄=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대원미디어 제공 디자인/김하랑

● 영화 '바람이 분다' 평가

흥행·작품성 갖춰…'전쟁 미화' 논란은 계속

20일 일본 전역에서 개봉된 '바람이 분다'는 상영 엿새 만에 무려 150억 엔(약 1690억원)을 벌어들였다. 다음달 말 개막될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장편 경쟁 부문에 올라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작품 속 전쟁 미화 논란은 국내외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극중 호리코시 지로와 다른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무기 장사꾼은 아닌데…" "(우리가 개발한) 제 비행기(가미가제 공격에 동원됐던 일본의 주력 전투기 제로센을 의미)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는 대사만 주고받을 뿐, 전쟁 무역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진 않는다. 미야자키 감독은 "일장기가 이토록 많이 나온 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그 일장기를 단 전투기들이 모두 추락한다"며 자신의 연출 의도를 에둘러 설명했지만, 전쟁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관객들이 볼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쿄=조성준기자

걸스데이 이번에는 '여름 여신'

'여자대통령' 이어 '말해줘요' 발표· '몰아치기' 활동으로 인기몰이 나서

걸그룹 걸스데이가 '몰아치기' 활동으로 대세 굳히기에 들어간다.

정규 1집 리패키지 타이틀곡 '여자 대통령'으로 큰 인기를 얻은 걸스데이는 디지털 싱글 '말해줘요'를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간다. 27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여자 대통령'의 방송 활동을 마무리한 이들은 하루 만에 신곡을 들고 28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했다.

아이돌 그룹의 신곡 활동 기간이 1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요즘, 걸스데이의 행보는 무척 이례적이다.

3월 별빛춤을 앞세운 '기대해'를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은 공백기 없이 '여자 대통령'을 선보였고, 연이은 신곡으로 인기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의 세(勢) 대결이 치열한 기운데 무명 기획사 출신인 걸스데이의 성공 스토리는 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초 '인기가요'에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치킨과 속눈썹 브랜드 광고 출연에 이어 여러 제품의 CF 모델 제의를 받고 있다. 또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위촉돼 진정한 '군통령'으로도 인증받았다.

막내 멤버 혜리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었지만, 정면 돌파로 위기를 극복한 것도 흔치 않은 성공 사례다.

소속사는 "한 달간 '여자 대통령'으로 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신나는 여름 노래 '말해줘요'를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노래는 여름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노래로 담은 댄스곡"이라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눈부시다 솔로가수 준호
앨범 오리콘 3위 · 공연 매진

2PM 준호가 일본에서 발표한 솔로 데뷔 앨범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24일 현지에서 발매된 '키미노 코에(너의 목소리)'는 대형 음반매장 타워레코드의 일간 판매차트에서 이틀(24~25일) 연속 1위를 달렸다. 발매 당일 오리콘 일간차트에선 3위에 올랐다.

무대에서도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된 5개 도시 12회 공연은 전회 매진을 기록했다. 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나고야를 거쳐 웹섬인 도쿄 공연(29~31일·8월 29일)을 앞두고 있다.

준호는 "스크린 데뷔작인 '감시자들'의 흥행 성공과 더불어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음반은 준호가 전곡의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도맡아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을 쏟아부은 앨범이다. 정말 의미가 깊은 성공"이라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when@

"나인뮤지스, K-팝 안티 생각 바꿨다"

美 빌보드지 집중조명

미국 빌보드 차트가 여성 그룹 나인뮤지스를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 차트 매거진 빌보드 비즈의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다큐멘터리 '스타제국의 나인뮤지스' 리뷰와 함께 이들의 매력을 소개했다.

영국 BBC와 미국 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때까지를 촬영한 영상으로, 잦은 멤버 교체와 역경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꿈을 향해 도전한 멤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제프 벤자민은 "나인뮤지스의 이런 노력이 한류를 싫어하는 해외 안티들의 생각까지 바꿔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신곡 '와일드'가 5월 K-팝 핫 100차트 18위까지 올라 나인뮤지스의 위상이 북미에까지 뻗어갔다"고 전했다.

빌보드 비즈가 정상급 한류 아이돌 그룹을 몇 차례 다룬 적은 있지만, 해외 인지도가 낮은 국내 가수를 대대적으로 조명하기는 이례적이다. 8등신의 서구형 외모와 과감한 안무를 앞세운 나인뮤지스는 이번 기사에 힘입어 K-팝의 '히든카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tar bag

장준화상병과 '뜨거운 우정'

김수로가 MBC '일밤-진짜 사나이'의 화롱대대 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장준혁 상병의 부친 상가에 문상을 간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장 상병은 27일 자신의 SNS에 "짧은 인연이었지만 먼 장지까지 오셔서 가족들에게 큰 위안을 주신 김수로 형님에게 고마운 말씀 올린다"며 "평소 연예인들의 행동이 쇼맨십일 거라는 선입견을 불식시켜주신 인간적인 면모에 가슴이 뭉클했다"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日 축제 '에이네이션' 선다

남성 3인조 보컬 그룹 픽스기 다음달 4일 일본 도쿄의 국립요요기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열리는 현지 최대의 여름 음악 축제 '에이네이션'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 앞서 이들은 4일 일본 코러스 그룹 러브의 전국투어 마지막 무대인 제프다이버시티 도쿄에서 초대 가수로 '헤이 유'아'를 부른다.

8월 중순에는 히트곡 '내 여자라고'의 일본어 버전인 '내 여자' 가수록된 CD를 발매한다.

서울 곳곳 게릴라 거리 공연

SG워너비 출신의 김진호가 28일부터 게릴라 거리 공연에 돌입했다.

이날 소속사에 따르면 18일 새 앨범 '한강에'를 발표한 김진호는 홍대 놀이터와 삼청동, 인사동, 대학로, 청계천,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을 돌며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다.

공연 장소와 시간은 김진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다.

신주쿠서 라이브 무대 열어

가수 박지헌이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라이브 무대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 박지헌은 그룹 V.O.S 시절의 히트곡인 '보고싶은 날엔' '큰일이다' 등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고(故) 채동하와 함께 불렀던 '어제 같은데'를 선사한 뒤 "오래 남을 수 있는 멋진 곡을 부르겠다"고 다짐했다.

하이힐 수준 키높이 구두 들킨 男스타

연예가 소곤소곤

▶ "실제로는 170cm이하 단신"

남성 눈스타 A가 얼마 전 신발에 낀 키높이 깔창을 들키는 바람에 작은 키가 들통 났습니다. 키가 프로필에는 170cm 후반으로 적혀있고 실제 화면에서 봐도 그리 작진 않았지만 실은 그게 다 여자들의 힐에 버금가는 높이의 키높이 구두와 깔창 덕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남성 록커자는 "우연히 바로 옆에 섰다가 신발 깔창을 보게 됐다. 나란히 선 내 키와 비교하면 장담컨대 분명 170cm도 되지 않는다"며 "프로필상의 키는 깔창 높이를 더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키 좀 작으면 어떤가요. 다른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요. 그리고 요즘엔 여자들이 힐을 신듯 남자들에겐 깔창이 필수라고 하니 너무 기죽지 말길 바랍니다.

▶ 여배우 B 소속사 못 찾는 까닭

인기 여배우 B가 자유계약(FA) 신분이 됐지만 새로운 계약 소식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는 흥행 불패를 이어오며 또래 여배우 중 캐스팅 1순위로 꼽혀왔는데요. 계약 종료와 함께 막대한 돈을 받고 새 소속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는 기획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아독존형 성격 탓이라고 하는데요. 히스테리 심한 연예인들을 관리 잘하기로 소문난 전 소속사 대표조차 B와의 재계약을 놓고는 먼저 손사래를 쳤을 정도라는데요. 그러나 정작 B는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돈다발을 안겨줄 새 둥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안하무인 남자스타C 너무해

두둑한 계약금과 고급 승용차까지 받고 새 소속사를 찾은 남성 스타 C의 안하무인격 행동도 많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톱스타임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던 C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숱한 기획사들의 러브콜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소속사를 옮긴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오랜 지인들조차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활동과 관련해서는 소속사 대표와만 상의하겠다고 고집해, 심지어 실무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1년 동안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니저는 "할리우드 스타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C와의 계약 기간이 빨리 끝나든지 내가 회사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 일본 내 '혐한류' 많이 꺾인 듯

일본 내 혐한류의 기세가 많이 꺾인 듯합니다. 현지 도쿄에서 한류의 중심지인 신오쿠보와 더불어 혐한 단체들이 자주 모이기로 소문난 신주쿠 중앙공원을 지난주 찾았는데요. 경찰에게 둘러싸인 이들 단체의 화면 몇몇이 피켓을 땅에 내려놓은 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원에 온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아주 잠깐 동안 이 광경을 바라본 뒤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혐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연예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류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사실 극소수"라며 "무조건 안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귀띔하더군요. /조예철

레이디가가 파격은 이런 것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트위터에 파격적인 누드 사진을 공개하며 새 앨범 '아트팝' 발매 소식을 알렸다. 새 앨범을 발표를 계획하다 기기묘묘한 콘셉트를 담은 사진으로 화제를 모아왔던 가가는 전기 회로로 만들어진 의자 위에 몸 누드로 몸을 가리고 앉은 설정으로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가가는 다음달 25일 MTV 비디오뮤직어워즈에서 첫 무대를 연다.

▶ 파격도 적당히, 오래 앉아있으면 아파요. /유순호기자

요리하는 두 훈남 여심 잡다

김태형·최강록 '마셰코' 결승

김태형 최강록

케이블 채널 올리브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2'가 두 '훈남' 출연자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26일 방송된 12회 준결승전에선 김태형과 최강록이 왕옥방과 최석원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깔끔한 외모와 뛰어난 요리 실력을 겸비한 이들의 선전을 앞세워 이날 방송분은 20대 여성들 시이에서 평균 시청률 1.8%(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케이블 가입 가구 기준-올리브와 스토리온 합산)로 같은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영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 만들기 및 영화 속 음식 재해석하기란 주제로 진행된 준결승전에서 김태형은 어알탕과 깐풍기를 선보였다.

이 중 깐풍기는 '집으로'의 유승호가 먹고 싶어했던 닭튀김을 재해석한 요리로, 어린이 입맛에 맞춘 바삭한 맛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강록은 올봄 개봉됐던 '고령화가족'에서 영감을 얻은 쌈장 삼겹살로 승부를 걸었다. 버섯·감자·삼겹살을 한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낸 요리로, 영화 속 어머니(윤여정)의 푸근한 자식 사랑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김경수 책임 프로듀서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절대 미각'을 자랑하는 김태형과 '요리 천재'란 별명이 붙은 최강록 도전자의 치열한 요리 대결이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들의 승부 결과는 다음달 2일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최후통첩' 받은 전두환의 선택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 내용이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48명의 유명 작가 작품을 포함해 300여 점의 미술품이 나왔고 167억원의 국민주택채권, 30억원 규모의 연금보험, 이태원의 기빌라 2채, 허브빌리지, 동물 모양의 금덩어리 등 귀금속 40여 점이 비자금 관련 여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게 다가 아니다. 큰아들 재국씨가 세운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와 막내아들 재만씨가 매입한 1000억원 상당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도주 명조장 나파밸리 와이너리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에 곳곳 7곳에서 50개의 통장이 압수됐다. 또한 측근으로 인정되는 47명의 증권 계좌가 추적 조사 대상이며 출국금지 대상자만 50명이 넘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5공 비리의 중심 인물로 백담사행에 이어 영어의 몸이 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부정 축재로 모은 2200억원을 추징당하고 불과 24% 정도만 납부해 1672억원을 내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오다 여야 합의로 '전두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 추징을 당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든이 넘은 노령에 전 대통령으로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고 여생을 마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조사를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랄 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잘못을 성찰(省察)하고 스스로 밝히고(自白) 스스로 납부(自納)하는 용단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지난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덮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어느 집권자처럼 혁명에 의한 역취(逆取)가 아닌 반란(叛亂)에 의한 집권을 했다. 고시에 역취해도 통치를 잘해 순수(順守)하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역취한 경우보다 훨씬 더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특히 부정부패에 대해선 서릿발처럼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됐다. 이제 전 전 대통령은 "옳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한낱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참마음을 보일 때가 됐다.

박근혜 복지의 '조삼모사'

뉴스룸에서
이국명
<경제산업부 부장>

춘추전국시대 송나라 학자인 저공이 키우는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숭이들이 길길이 날뛰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제안을 바꿔 원숭이들을 만족시켰다.

중국 고서 '열자(列子)'의 황제편에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인 '조삼모사'의 유래다. 이 고사성어는 일반적으로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저공의 뛰어난 지혜를 칭송하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도 조삼모사가 맞는 말일까.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경제학적 가치를 감안하면 원숭이는 멍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영악하다. 같은 7개의 먹이라도 '조삼모사' 보다는 '조사모삼'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원숭이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침에 3개를 받았지만 저공의 마음이 바뀌어 저녁에 4개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 개편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기본 방향은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 226개 비과세 감면 중 무려 80%가 중복되거나 유사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더 나아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현행 15%에서 10%로 다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한 차례 낮아진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혜택이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조세 개편안의 주된 타깃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액 30조 원 가운데 이들 계층의 비중은 59.4%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현재 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혜택을 빼앗아 마련한 재원으로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복지 재원에 쓴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조삼모사'를 '조사모삼'으로 바꿔 먹이를 늘리지 않고도 원숭이의 '복지'를 실현했던 저공과는 달리 '조사모삼'을 '조삼모사'로 개편하겠다니 서민 중산층을 원숭이보다도 어리석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26일 오후 많은 시민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장마가 물러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무더위가 한창 계속되고 있다. 거리낌 없이 물속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어른들의 대비되는 모습은 항상 재밌다.
/손진영기자 son@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서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정겹다. 헌책이 쌓인 자리에서 흑백사진의 풍경이 떠오른다. 시간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던 존재가 반가운 표정으로 나그네를 맞이한다. 활판인쇄로 된 책은 글자 하나하나가 종이에 자신을 찍어 자취를 깊게 새긴다. 누렇게 색이 변한 종이를 펼치면 그동안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세월의 진액이 이름 모를 향기처럼 피어오른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점방(店房)들이 줄지어 있다. 부산 토박이 억양으로 발음하면 '점빵'이다. 물론 골목도 '골묵'이 된다. 그제야 정말 제대로 올 곳에 온 느낌이 든다. 자갈치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보수동은 헌책방 골목의 고향이다. 서울 청계천 헌책방 거리와 종로 피맛골도 모두 개발주의의 포클레인으로 찍혀 디기버렸으나 이곳은 다행히 아직 버티고 있다. 하지만 시정을 알고 나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여긴, '책의 피맛골'인 셈이다. 고관대작이 탄 말이 지나길 때까지 땅에 엎드려 지내야 했던 서민들이 그런 굴욕을 피하기 위해 들어선 골목이 피맛골이다. 당연하게도 서민의 애환이 나누어지는 이른바 '오프 브로드웨이'가 생겨난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실험주의 예술정신은 오프에서 태어난다. 그걸 죽이는 순간 브로드웨이의 생명력도 고갈된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주 태연하게 그런 역사와 문화 살해 정책을 밀어붙인다. 점빵과 골목은 도시에서 지워지고 대신 마트와 대로만 전시된다. 고관대작들이 피맛골까지 점령한 꼴이다.

헌책방은 가난한 시절의 산물만이 아니며 새 책을 사지 못하는 이들의 고달픔을 삭여주는 곳만이 아니다. 이런 저이든 책은 당대의 목소리와 발언 그리고 흔적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 시대가 지나면 다시는 그런 책을 대거나 쓸 수 있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에 헌책은 단지 헌책이 아니라, 그 책을 낳은 시대의 소중한 자화상이다. 자기의 자화상을 잘 간직하고 잃어버지 못하는 공동체는 '지금과 내일'에 대한 짜우침이 초라해진다.

미국 뉴욕의 스트랜드 서점, 영국 런던의 채링크로스와 일본 동경의 진보초 헌책방 거리,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의 헌책 노점상들 모두 그 나라 문화의 자랑스러운 백미이다. 우리와 너무도 비교된다.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살려내고 이끄는 일은 부산 시민들만의 일이 아니다. 그건 이 나라 전체의 정신사적 책임이다.

'무늬만 캠핑'시대

노트북 ON
권보람
<생활레저부 기자>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응답한 이들(94%) 중 78%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단다.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휴가를 즐길까.

답은 캠핑에 있는 듯하다. 이전에는 콘도나 리조트에 묵으며 인근 지역을 관광하거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겼다면, 요새는 아예 숙박 자체가 하나의 캠핑 경험이 되고 있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 XTM '바드레날린 시즌2' 등 TV 프로그램도 인기에 불을 지폈다. 불황 속에 가계 지출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캠핑 시장은 올해 60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핑 산업의 성장이 곧 캠핑 문화의 성숙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얼마 전 만난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캠핑은 집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밖에서 하는 수준"이라면서 "쏟아지는 캠핑 전용 식품이니 고가의 캠핑용품만 봐도 알 만하지 않으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나도 캠퍼를 자청하고 있지만 정작 자연 속에서 부족해도 자신만의 힘으로 먹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하는 진짜 캠핑은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적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법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600개가 넘는 오토캠핑장 중 등록 업체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현재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캠핑장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도 없어 위생 상태 점검이나 예약 규정 등과 관련해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레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캠핑이 지금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골칫덩이로 변할지 모른다.

"박지성 PSV 1년 임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사진)이 친정팀인 PSV 에인트호번으로 1년간 임대된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축구 전문 사이트인 부트발 인터내셔널은 28일 "박지성이 27일 에인트호번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PSV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이 2002년 유럽 진출 당시 처음 몸담았던 현지 명문 구단이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해 박지성의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순호기자

'홍명보호' 일본 역습에 무너져

윤일록, 데뷔골 맹활약

28일 한국 축구 대표팀이 통산 76번째 한·일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며 패했다. 선제골은 일본의 몫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공세를 차단한 뒤 자기 진영에서 이오아미 도시히로(히로시마)가 전방을 향해 길게 차넘겨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가키타니 요이치로(세레소 오사카)에게 정확하게 연결됐다. 한국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가키타니는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꽂았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8분 만에 동점골이자 홍명보호 출범 이후 첫 득점에 성공했다. 왼쪽 측면을 공략한 한국은 윤일록이 미드필드 지역 왼쪽에서 이승기와 1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일본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28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한국 대 일본의 경기에서 윤일록이 일본 선수들과 볼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에 들어간 한국은 일본의 수비진을 쉴 새 없이 파고들었지만 결승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대기심이 추가 시간 5분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나오는 순간 일본의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일본은 왼쪽 측면을 돌파한 결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슈팅한 게 골키퍼 정성룡의 손을 맞고 튕겨나왔다. 공교롭게도 볼은 반대쪽이 도사리던 가키타니에 발끝에 떨어졌다. 가키타니는 강력한 슈팅으로 한국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연합뉴스

기아·SK, 짜릿한 역전승

6위 기아와 7위 SK가 9회초에 나란히 역전승하며 포스트시즌 진출 불씨를 되살렸다.

기아는 28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와의 경기에서 4-4로 맞선 9회초 안치홍의 싹쓸이 3점포에 힘입어 8-4로 역전승했다. 기아는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나며 4위 두산과의 승차를 2.5게임으로 유지했다.

반면 NC의 '이기 공룡' 권희동은 2회 솔로아치에 이어 6회 역전 3점홈런을 날렸으나 팀이 재역전패 당해 빛이 바랬다.

7위 SK도 사직 원정경기에서 1-3으로 뒤진 9회초 최정의 2타점 2루타 등에 힘입어 4-3으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SK는 두산에 5.5게임 차로 뒤져 있지만 7년 연속 '가을잔치'에 참석하겠다는 희망을 이어갔다.

넥센은 삼성과의 대구 방문경기에서 선발 브랜든 나이트의 호투 속에 장단 13안타를 몰아쳐 5-2로 승리했다. 넥센의 용병 에이스 나이트가 8이닝 동안 9안타를 맞았으나 삼진 8개를 뽑으며 2실점으로 막아 8승(7패)째를 올렸다. 마무리 손승락은 9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시즌 26세이브(2승2패)째를 기록, 구원 선두를 질주했다.

단독 1위 삼성은 7연승을 달리다 일격을 당했다.

잠실구장에서는 두산이 상대 실책에 편승해 LG를 7-4로 따돌리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다. /연합뉴스

■잠실

두산	007	000	00X	7
LG	002	001	010	4

승 = [illegible] 세 = [illegible] 패 = [illegible]

■대구

삼성	001	000	100	2
넥센	011	001	200	5

승 = 나이트(8승7패) 세 = 손승락(2승2패26세이브) 패 = [illegible] 홈런 = [illegible]

■사직

롯데	100	010	100	3
SK	010	000	003	4

승 = [illegible] 세 = [illegible] 패 = [illegible]

■마산

NC	010	003	000	4
KIA	010	200	014	8

승 = [illegible] 세 = [illegible] 패 = [illegible] 홈런 = [illegible]

"신수형 미안" 류현진 9승 꽂다

신시내티전 7이닝 9K 쾌투 추신수 무안타 묶고 판정승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후반기 2연승을 달리며 시즌 9승(3패)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2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빼앗아내고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는 등 빼어난 투구 내용으로 팀의 4-1 승리를 주도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 맞붙은 선배 추신수를 상대로는 1회 볼넷을 내줬지만 3회 1루 땅볼로 막아 사실상의 승리를 거뒀다.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선수들의 투타 대결이 이뤄지기는 2010년 7월 30일 추신수(당시 클리블랜드)와 박찬호(뉴욕 양키스) 이후 무려 1094일 만이다. 류현진과 추신수는 9월 7~9일 신시내티에서 다시 격돌할 예정이다.

1회 볼넷으로 1루를 밟은 추신수(왼쪽)가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보며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기에서 최고 시속 153㎞의 강속구와 능수능란한 볼 배합을 과시한 류현진은 빅리그 첫 완봉승을 기록했던 5월 29일 LA 에인절스전에 이어 한 경기 개인 최소 피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탈삼진은 5월 1일 콜로라도전(1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기 후 류현진은 "(추)신수 형이 파워도 있고 잘 맞히는 선수라서 초구부터 강하게 나갔고 모든 구종을 집중해서 던졌다"며 "서인진의 첫 경기가 끝나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 밥값은 식당 사장님이 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추신수는 "류현진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면서 "메이저리그 어떤 팀에 가도 2~3선발은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경기장에는 1만여 명의 한인 관중들이 운집했다. 송승헌과 싸이도 관람했는데, 싸이는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신나는 '말춤'으로 화답했다. /조성준기자 when@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at do you want, John?
B Oh, I don't know. 넌 뭐 먹을 건데, 넬?
A 난 커피 한 잔하고 케이크 한 조각 먹을래.
B Hmm, the cake looks so yummy. I think I'll have one, too.

정답 What do you want, 넬? / I want a cup of coffee and a piece of cake.

생생영어팁

▶ I think I will... ~인 것 같아요

우리말 습관 중에 ~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답니다. 바로 I think..., I guess..., I suppose...로 시작하는 말이 ~인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등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냥 I will have a burger.(전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라고 하기보다 I think I'll have a burger.(전 뭐 햄버거를 먹을까 하는데.) 정도로 말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청유문

▶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자고 권유할 때 사용하는 말로, Let's+동사원형을 쓴다. (let's는 let us의 축약형)

긍정	Let's + 동사원형 (우리 ~합시다)
부정	Let's not + 동사원형 (우리 ~하지 맙시다)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_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Let's have a party. 우리 파티 해요.
2. Let's get out of here. 우리 여기서 나가요.
3. Let's not invite him. 우리 그를 초대하지 말아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s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career-development seminars are open to both part-time ______ full-time employees.

(A) and (B) or
(C) nor (D) to

02. Maintaining an emergency account will ensure that you have ______ to cash when you need it.

(A) contact (B) access
(C) entry (D) response

01. 경력 개발 세미나에는 시간제 직원과 정규직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앞의 both와 짝을 이루어 사용하는 상관접속사인 (A) and를 쓴다.
어휘 career-development 경력 개발 open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답 (A) and

02. 비상 계좌를 유지하면 필요할 때 꼭 현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문맥상 '필요할 때 현금을 이용할 수 있게' 가 적합하므로 (B) access를 써야 한다.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emergency 비상 (사태) account 계좌 ensure 보장하다 access 접근, 이용 권한 entry 입장, 입구
정답 (B) access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5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 15초 답변

■ 장소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Where do you usually go to shop for clothes? 옷을 사러 주로 어디로 갑니까?

A [장소에 대한 언급]
I usually go to the shopping mall to shop for clothes. 저는 주로 쇼핑몰로 옷을 사러 갑니다.
[선택의 이유]
There are lots of clothing stores at the shopping mall. It is easy to find clothes that I like. Also, I can try on the clothes in the fitting room, which helps me pick the right items.
쇼핑몰에는 옷가게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을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볼 수 있어서 제게 맞는 옷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Where 질문에는 질문 속 내용과 관련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장소를 선택하였는지 등 추가 정보를 연결하여 말해준다.

Lusmo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고객님께
불친절한 루스모는
바로 전화주십시오
고객만족센터
02-6925-1001
친절한 루스모